큰스님께 길을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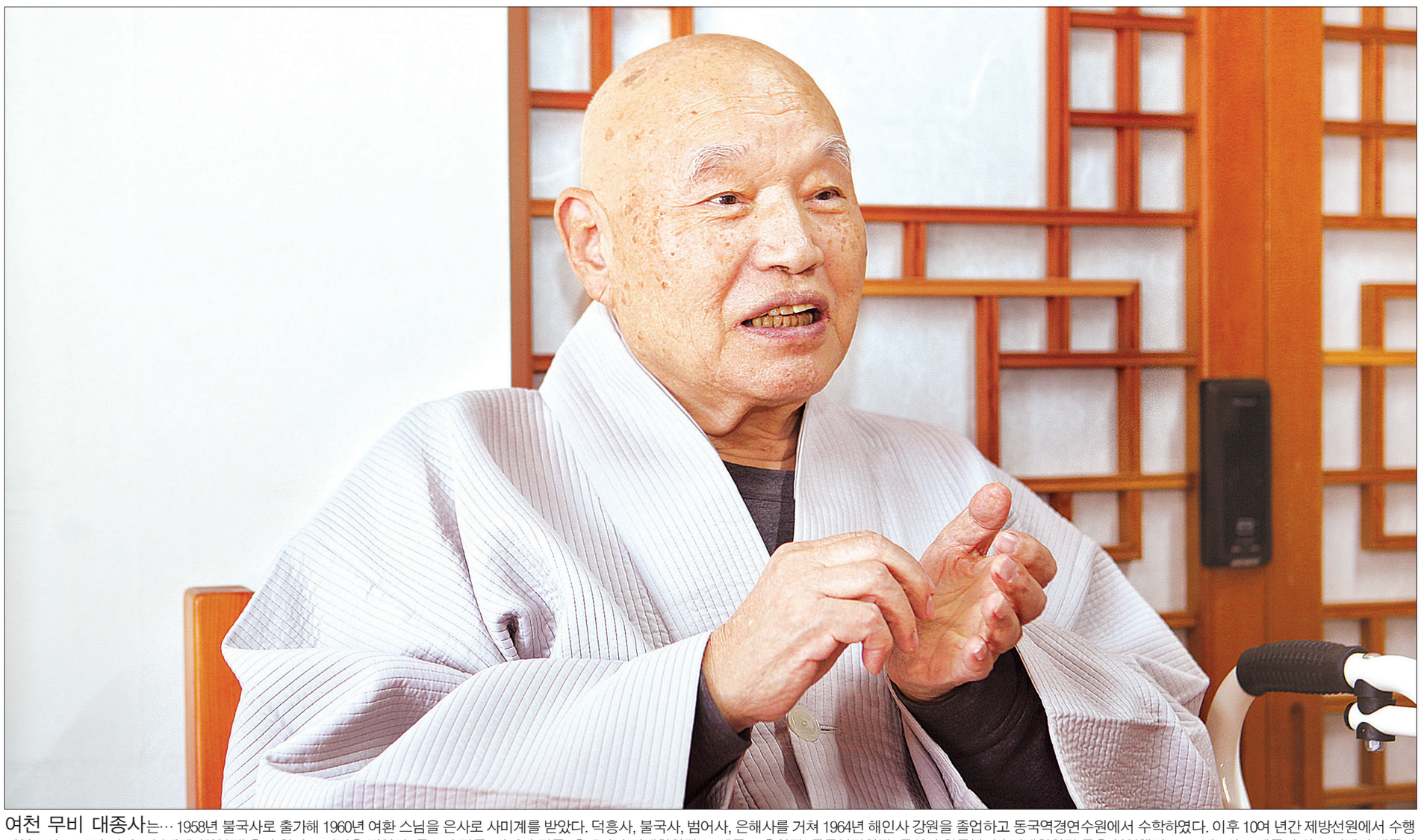
여천 무비 대종사

“부처님 가르침 널리 펼쳐 모든 생명 교화합시다”

〈張大教網漉人天之魚〉

법시 · 재시 · 무외시 중에서
가장 제일은 ‘법보시’에 있어
모든 저작, 육성강의 등 DB화
USB 담아 ‘법보장’ 보급 추진
불교박람회서 1만개 무료 배포

1988년 불교 알리기 운동 시작
2000년대 병마 겪으며 원력 강화
‘화엄경’ 강설집 81권 종단협 보시
“법공양은 불자의 본업이자 의무
복 받고 싶다면 복부터 지어내라”



여천 무비 대종사는… 1958년 불국사로 출가해 1960년 여환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덕흥사, 불국사, 범어사, 은해사를 거쳐 1964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역경연수원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10여 년간 제방선원에서 수행하였으며 1976년 탄허 스님에게 〈화엄경〉을 수학하고 전법을 받았다. 통도사 강주, 범어사 강주,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조계종 교육원장, 동국역경원장,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5월 조계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현재 부산 범어사 화엄전에 주석하고 있으며, 문수선원 문수경전연구회에서 수백 명의 스님과 재가신도들에게 〈화엄경〉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카페 ‘염화실’(2004년 개설)과 유튜브 채널 ‘무비 스님’(2020년 개설)을 통해 ‘염화실TV’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 범어사=신중일 기자 · 사진=하성미 기자

강백(講伯)은 스님들에게 경론을 가르치는 강사스님 중 존경받는 스님을 부르는 존칭이다. ‘대강백(大講伯)’은 말그대로 존경을 넘어서는 의미다. 그래서 ‘대강백’이라는 존칭을 대중들에게 받는 선지식은 손에 꼽는다.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 화엄전에 주석하며 대중들에게 경론을 가르치는 여천 무비 대종사는 세간과 출세간에서 공히 ‘대강백’으로 존경하는 선지식이다.

2월 21일 범어사 화엄전에서 친견한 무비 스님은 ‘법공양(법보시)’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이야기는 이내 법문이 돼 흘렀다.

무비 스님 ‘법의 창고’ 개방

최근 무비 스님은 ‘법보장(法寶藏)’이라는 USB를 배포하는 법공양 불사를 펼치고 있다. 무비 스님이 평생에 걸쳐 쓴 저작과 강의집, 육성강의 등을 모두 데이터베이스(DB)화해 USB에 담아 무료 배포하는 법공양 불사의 실무는 범어사 승가대학장 용학 스님이, 제작은 무비 스님의 법문 녹음을 해왔던 삼영불교음반이 맡았다.

USB에는 △다음 카페 ‘염화실’ 소개 영상 △무비 스님의 사자후-〈화엄경〉 초발심공덕품 영상 강의 △전집 〈화중연화(火中蓮花)〉(PDF) △〈화엄경〉 강설집 전81권(PDF) △법화경 강의(mp3) △임제록 강의(mp3) △〈화엄경〉 세주묘음품 강의(mp3) △월간 염화실(PDF) △화엄경 기신론 도표자료 등이 수록됐다. 또한 무비 스님의 사진자료인 ‘포영집’과 〈화엄경〉 강설집과 전집 〈화중연화〉 봉정법회 영상과 BBS불교방송·BTN불교TV 인터뷰 영상 등 스님의 기록들도 담겼다.

무비 스님이 평생에 걸쳐 공부하고 강의했던 모든 것을 담아낸 USB는 그야말로 ‘법의 보배창고(法寶藏)’다. 우선 스님은 4월 3~6일 열리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법보장’ USB 1만개를 무료로 배급한다. 누구나 와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가져갈 수 있도록 스님 자신의 ‘법의 보배창고’를 활짝 개방한 것이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법보장’ USB를 1만개를 무료로 배급하려 합니다. 그런 뒤에는 다음카페 ‘염화실’에 ‘법공양란’에 신청하면 누구에게라도 ‘법보장’ USB를 보내려고 합니다. 부처님 법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이 위대한 법에 저작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와서 만나도록 해야죠. ‘법보장’ USB를 통해 위대한 부처님 법을 모든 중생들이 알아갔으면 해요.”

‘법공양’, 불자라면 해야 할 일

스님에게 법공양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스님은 “불자들의 본업”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불교에서 보시하는 방법이 법시(法施), 재시(財施), 무외시(無畏施)가 있습니다. 재시는 재물을 보시하는 것이고, 무외시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고, 법시는 부처님 법을 대중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중에 최고는 부처님을 법을 전하는 법보시입니다. 부처님 제자라면 부처님의 위대한 법을 전하는 데 매진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무비 스님 전집 〈화중연화〉 봉정법회 직후 이뤄진 기념촬영 모습.



원효 대사 옥인과 날인의 모습. ‘장대교망녹인천지어’이라는 〈화엄경〉 경구가 새겨져 있다.



무비 스님의 〈대방광불화엄경 강설〉81권 전집. 화엄경 강설집 완간은 국내서는 처음이다.

이어 ‘법을 공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법을 갖춰야 하지 않는가’를 물으니 무비 스님은 〈백유경〉에 나오는 ‘말라버린 소젖’의 비유를 소개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다.

옛날 어떤 사람이 손님들에게 소의 젖을 모아 대접하려 했다. 소젖을 짜려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날마다 미리 소젖을 짜 두면 소젖은 점점 많아져 둘 곳이 없을 것이다. 또한 맛도 변해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보다는 소젖을 소 뱃속에 그대로 모아 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한꺼번에 짜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는 곧 어미 소와 새끼 소를 따로 떼어 두었다. 한 달이 지난 후 손님을 초대했다. 잔치를 베풀고 소를 끌고 와서 젖을 짜려고 했다. 그런데 그 소의 젖은 어찌된 일인지 말라 없어져 버렸다.

“내가 재물이 많이 쌓인 뒤에 법이 생긴 뒤에 보시하겠다는 것은 소젖을 짜지 않고 모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을 모으기 전에 법을 갖추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변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낼 수 있을 때 바로바로 하는 겁니다.”

“나는 박복한 사람이었다”

말을 마친 무비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저는 참 박복(薄福)한 사람이었다”라고 운을 던진 스님은 왜 우리가 보시를 하며 복전(福田)을 일궈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재물로만 보면 어릴 적에도 풍족하게 살지 못했고, 출가 직후에도 사정이 참으로 어려웠어요. 한마디로 박복했죠. 학인 때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 우표값이 없어서 우표를 빌려서 보냈어요. 그때 우표값이 2, 3원하던 시절이었는데, 이것도 한동안 갚지를 못했습니다. 이후 스님이 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법을 전해왔습니다. 법보시 운동도 펼쳤는데, 그때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저 은하수의 별만큼 많은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전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부처님 법을 보시하는 것만큼 큰 공덕은 없습니다.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럼 복을 지어야죠. 밭을 일구지 않았는데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복을 지으면 복을 받습니다.”

법보시(법공양)는 무비 스님이 일궈온 복밭이다. 무비 스님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 범어사를 소개하는 표지판이나 안내서가 없는 것을 보고 범어사 영어 안내서와 〈법구경〉 구절을 영어로 번역해서 부산 주요 법당 등에 비치하며 법보시를 시작했다.

이후 법보시의 원력이 더 커진 것은 2000년대 병고를 앓으면서다. 2003년 12월 교육원장 소임을 내려놓고 스님은 꽤 오랜 시간 병고에 시달렸다.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없었고, 오래 공부할 수도 강의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스님은 염화실 칠판에 ‘감인대(堪忍待)’라고 적었다. 그리고는 곧장 집필에 몰두했다. 〈법화경 강의〉를 다듬고 〈임제록 강설〉을 탈고했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글을 쓸 때만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살아 있는 동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회향하고 가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모든 생애를 다 바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왔으니 이제는 힘닿는 데까지 세상에 다 돌려주고 가야죠.”

실제, 무비 스님은 자신의 저서를 대중들에게 꾸준히 법보시해왔다. 지난 2019년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에 〈화엄경〉 강설 81권을 각 1질씩 보시하기도 했다. 앞서는 조계종단 사찰 1000곳에 법공양해 큰 감동을 알렸다.

무비 스님의 법공양은 비단 책뿐 만이 아니다. 법회와 강설을 녹취해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카페 염화실에는 스님의 경전 강의 녹취부터 시작해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지장경〉 〈유마경〉 등 대부분의 경전 강의를 보고 공부할 수 있다. 특별한 조건은 없다. 그저 카페에 가입만 하면 된다.

코로나 팬데믹에는 유튜브 법회도 시작했다. 유튜브 채널 ‘무비 스님’에서는 매일 아침 〈화엄경〉을 무비 스님과 함께 읽기 위한 불자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매일 160여 명 가량이 스님의 경전 읽기 스트리밍에 동참하고 있다.

모든 건 마음먹기 달렸다

무비 스님의 주석처는 ‘화엄전’이다. 무비 스님이 자신이 주석하는 전각에 ‘화엄’을 붙일 정도로 〈화엄경〉을 오랜 기간 천착해 왔다. 이는 탄허 스님의 영향이 크다. 무비 스님은 탄허 스님의 강맥을 이었으며, 각성·통광 스님과 함께 ‘탄허삼걸’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무비 스님에게 〈화엄경〉이 가진 요체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자, 스님은 책 한 권을 소개했다. 바로 얼 나이팅게일의 자기계발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We become what We think about)〉였다. “인생이 바뀔 것”이라면서 “속가 조카에게 100번 사경하라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책 제목이 ‘We become what We think about’인데 해석해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된다’로 번역이 되죠.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입니다. 〈화엄경〉의 요체이자 원효 스님이 강조하신 일구(一句)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해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바뀝니다. 마음을 잘 써야합니다.”

‘화엄전’ 곳곳에는 원효 스님 옥인의 날인이 보자기, 액자 등에 새겨져 있다. 옥인의 내용은 ‘장대교망녹인천지어(張大教網漉人天之魚)’라는 〈화엄경〉의 경구다. 무비 스님은 이를 ‘부처님의 높고 큰 가르침을 널리 펼쳐서 모든 사람과 생명을 다 교화하리라’고 해석했다. 최근 무비 스님이 경구를 많이 인용한다. 스님의 법보시 원력이 이 경구에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일 것이다.

“원효 스님의 옥인은 범어사 원효암 우물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아마도 원효 스님이 만드시고 사용하다가 원효암에 불이 났을 대 도장을 우물 속으로 던졌을 겁니다. 화엄의 그물을 크게 만들어 던져 놓으면 그 그물에 사람도 동물도 걸릴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체만물이 위대한 부처님 법을 알고 교화됐으면 합니다. ‘장대교망녹인천지어(張大教網漉人天之魚)’는 원효 스님의 깃발이고, 제 원력의 깃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접하고 공부하길 바랍니다.”

인터뷰 말미, 혼란스런 현재 한국사회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청했다. 무비 스님은 곧장 “사람이 부처임 알라”고 설했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도를 통한다, 도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허황된 소리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그대로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도 옮겨가지 않아요. 사람이 그 자체로 부처(人佛)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뒤로 나아가지 않아요.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받들고 섬겨보세요. 가정에서부터 남편, 아내, 자식, 부모님 등 가까운 인연부터 부처님으로 받드세요. 가정이 행복지고, 내가 행복해집니다. 이웃과 타인도 부처님으로 생각하는 의식들이 커지면, 이것이 세계 평화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을 푸는 해결의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